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 ‘현직 등판’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선거, 열기 고조되나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 열기가 현직 교육감의 등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당 선거에 몰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교육감 선거가 40년 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 이 교육감은 청사를 떠나기 전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교육감은 3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31일에는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이 6·3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 둔 시점에서 조기 등판한 것은 지지세

###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등록·선거운동 시작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 활용

확장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다. 교육비전위는 광주와 전남지역 시·도민 555명으로 구성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 교육감은 30일 전남교육청에서 분청실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과 함께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4월1일과 2일에는 순천과 화순에서 일선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통합 추

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주관한다. 김 교육감은 4월 중순께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추대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4월 중순 이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숙영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전남은 40년 만에 행정통합이 성

사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면서 최근까지 교육감 선거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다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교육감 선거 열기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주청사 위치, 학군제 변경, 공무원 조직 구성 등 다양한 교육현안을 놓고 후보 간 공방전이 벌어지면 유권자의 관심도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비후보가 8명으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도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행정통합으로 선거권역이 넓어져 선거비용이 늘어난 것 등을 감안하면 일부 예비후보들은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기동취재부

##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주자들, 주택 보유 ‘극과 극’

통합시장 후보군, 지역에선 ‘관사전세’ vs 수도권엔 ‘고가 자택’  
선출직 단체장 상당수 다주택자... 지역구 내 주택 보유는 기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울자택을 매각한 가운데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선출직 단체장들의 부동산, 특히 주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시장 후보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자택을 두고 지역에선 전세 또는 관사살이를 하고 있고, 무주택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의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대부분은 선거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시장 후보 5인 ‘강남아파트 vs 무주택’**  
26일 공개된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 내역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5명 중 김영록 전남시사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100.29㎡, 18억원)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인 전남에는 남관사에서 거주하며 별도 임차권 등 신고 내역은 없다. 김 지사는 “서울 자택 즉시 매각”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광주 북구 문흥동 현대아파트(102㎡, 1억6100만원)를, 민형배 의원은 배우

자 명의로 된 광주 광산구 타운하우스(6억4800여만원)와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4억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보다 3200만원 줄어든 2억9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자가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7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주철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164.21㎡, 19억7800만원)를 보유 중이고, 지역구인 여수에는 3억 원대 아파트 임차권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대부분 선거구 내 주택...다주택 고리표는 부담**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주택 보유도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선거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인 전남에는 남관사에서 거주하며 별도 임차권 등 신고 내역은 없다. 김 지사는 “서울 자택 즉시 매각”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광주 북구 문흥동 현대아파트(102㎡, 1억6100만원)를, 민형배 의원은 배우

## 광주 공직자 최고 89억·최저 2300만원... 평균 12억

### 임미란 시의원 55억원... 강기정 시장 11억7000만원

광주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2억여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심정욱 광주시의회원이 89억원, 임미란 의원이 55억원을 신고해 1·2위를 기록했다. 26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부시장, 5개 구청장, 자치경찰위원회,

시의원 등 32명의 평균 재산은 12억여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평균 12억905만원에 비해 921만4000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00억대를 신고한 심 의원의 재산이 줄면서 평균 재산도 줄었다. 심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액 116억8461만원에 비해 27억1202만6000원이 감

소한 89억7258만4000원으로 나타났지만 광주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위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재산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 중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는 임미란 광주시의회원으로 55억2872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42억220만3000원을 신고한 임 의원의 재산은 1년 사이 13억2651만7000원이 늘었으며 예금이 49억9336만3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이

31억4442만9000원, 문인 북구청장이 20억1992만8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총 9명으로 집계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산은 11억7522만6000원으로 지난해 11억6714만8000원에 비해 807만8000원 늘었다. 강시장은 본인과 자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등이 1037만8000원에서 1705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16억777만4000원, 김영문 문

화경제부시장 11억7574만1000원,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8억3730만5000원, 전준호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17억1811만2000원을 신고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 평균 재산은 9억2100여만원으로 20억원대의 문 북구청장이 가장 많았으며 김병내 남구청장 10억3907만8000원, 김이강 서구청장 6억996만8000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5억1352만4000원, 임택 동구청장 4억2410만5000원 순이다. 광주시의원 21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6417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나윤 의원은 2301만5000원, 박미정 의원 2354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로 등록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1073만원 증가했으며 박 의원은 1억677만원이 감소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내역은 공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아파트(중공형소/관리,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커머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오염도에 따라 차이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 시공 전후 사진

|      |      |      |      |      |      |
|------|------|------|------|------|------|
|      |      |      |      |      |      |
| 청소 전 | 청소 후 | 청소 전 | 청소 후 | 청소 전 | 청소 후 |
|      |      |      |      |      |      |
| 청소 전 | 청소 후 | 청소 전 | 청소 후 | 청소 전 | 청소 후 |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